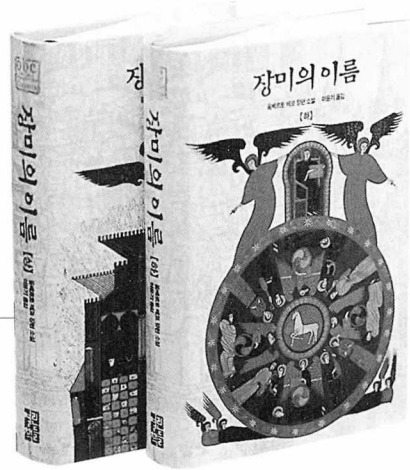


‘무한한 기호과정’의 미로에서 길찾기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대한 기호학적 독해

박상진 | 부산외대 이태리어과 교수



《장미의 이름》(이윤기, 열린책들)은 추리소설 모양을 하고 있지만, 철학과 신학, 역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자리한 책이다. 추리소설의 구조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더욱 흥미롭게 다루려는 에코의 재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장미의 이름》이 (역사소설이나 철학소설보다) 추리소설로 각광받는 것은, 추리소설로 읽을 때 재미가 각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재미는 특히 지적인 것인데, 이는 기호학으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에코가 자신의 기호학 이론을 고스란히 적용한 소설 《장미의 이름》은 기호짜기와 기호풀이, 즉 기호과정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장미의 이름》 자체가 그 기호 과정 안에 놓이고자 한다. 이는 읽기의 방법론을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다.

무한한 기호중첩 위의 해체와 재구성

《장미의 이름》의 기호과정은 여러 겹으로 얹혀 짜인다. 주인공 윌리엄 수사하는 우주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한다. 우주는 《장미의 이름》 이전에 이미 기호과정 안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아드소는 내레이터로서 윌리엄의 이런 언행을 기술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윌리엄이라는 기호를 풀이하는 것이고, 또 에코는 그런 기호 풀이의 과정을 다시 기호로 짜서 《장미의 이름》을 출간한다. 우주와 윌리엄, 아드소 그리고 에코는 모두 기호의 겹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그 기호의 겹을 벗겨 풀어내는 동시에 또 다른 기호를 짜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호를 풀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해석돼야 할 기호 세트며 기호의 무한한 연쇄다. 이것이 에코가 퍼스를 이어받아 발전시킨 개념인 “무한한 기호과정”이다. 하지만 기호학적 읽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에코는 추리 소설의 묘미가 바로 추론 구조를 알아나가는 즐거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추론 구조는 미로의 형태를 띤다. 미로는 우리의 추리와 인지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체가 세계의 기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의 구조는 이미 복잡하게 짜여져 있으며, 그 구조는 들뢰즈의 미로가 그러하듯, 결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장미의 이름》은 곧 미로며 도서관이다. 이 미로는 연역적인 고

전적 미로와 귀납적인 매너리즘적 미로가 아니라, 추정에 해당하는 들뢰즈식의 미로다. 비선조적인 추정은 자유로운 상상 운동이며 직관적이고 탈근대적인 사고의 패턴이다. 시간적, 논리적, 선조적 진행 속에서 작가와 독자가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미의 이름》은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등장인물에 대한 판단을 거듭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선조적인 기호 과정이기도 하다.

독자에게 해석의 자유 열어봐

제목에 ‘장미’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장미’의 의미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에코는 설명한다. 작가는 독자에게 해석의 열쇠를 주지 않고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해석의 자유를 준다. 이는 미로와 추정의 효과다. 미로와 추정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미의 이름》 읽기는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해체와 재구성의 방식을 띤다. 미로에서 어정거리는 그 자체에서, 즉 질서를 부여하고 범인을 색출하기 보다는 추론 구조를 즐기는 가운데, 독자는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경험을 더불어 짜맞추면서 《장미의 이름》의 의미를 무한히 창출해낸다. 이것이 《장미의 이름》 텍스트가 지닌 구조적 풍요로움이며, 그 풍요로움을 만들고 또 분석하는 것이 기호학이다.

그러나 “무한한 기호과정”에 놓인 《장미의 이름》과 독자는 어찌면 텍스트의 우주 사이에서만 헤엄치는지도 모른다. 추리소설의 재미가 추론 자체에 있다면, 지적 유희 내지 자기 탐닉에 빠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게 볼 때 《장미의 이름》을 추리소설로 읽지 않는 것이 《장미의 이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또는 추리소설을 기호학적으로 읽지 않는 것이 추리소설의 사회적 의미, 예를 들면 그림시가 대중적 추리소설에서 자본주의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듯이 추적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에코는 《장미의 이름》을 기호학이나 추리소설과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읽는 이타적인 읽기도 기호과정에 포함시킬지 모르겠다. 그러나 에코는 기호학의 문턱, 즉 경계를 매우 강조하는 편이기도 하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지평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는가. ■

박상진 교수는 부산외국어대 이태리어과에 재직중이다. 《Semiotics and the Theory of Openness》(이탈리아 문학사)를 펴냈고, 《아방가르드 예술론》등을 번역했다.